

# 자리 확정 선수는 없다... KIA 무한 경쟁시대



KIA 타이거즈 내야수들이 17일 챔피언스필드 실내에서 김민호 코치와 테니스공을 가지고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KIA는 이날 훈련을 끝으로 지난달 14일 시작한 마무리캠프 일정을 종료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5주간 마무리 훈련 종료... 4차례 자체 흥행전으로 실전 점검 새 감독·코치진, 선수들 '이름값' 빼고 원점 경쟁·평가 캠프 조장 유민상 "코치진과 수평적 대화, 능동적 훈련"

KIA타이거즈의 첫 국내 마무리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변화'와 '무한 경쟁'이 이번 훈련의 키워드이자 결과물이다. 지난달 14일 소집돼 가을 마무리 훈련에 돌입한 KIA 선수들이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합평-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마지막 훈련을 갖고 5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3일 훈련-1일 휴식' 일정으로 훈련을 소화한 선수들은 4차례 자체 흥행전을 갖고 실전 점검도 나갔다. 이번 캠프는 '변화'로 이야기할 수 있다. KIA는 구단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 왕조 재건을 위한 새 판을 썼다. 타이거즈 첫 외국인 사령탑이 된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달 18일부터 직접 지휘봉을 잡고 훈련을 이끌었다. 이후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도 합류했고, 새 코치진까지 구성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일본 오카나와가 아닌 광주와 합평이라는 훈련지 변화도 있었다. 합평에 새로운 경기장 한 면이 추가되면서 KIA는 첫 국내 훈련을 준비했다. 또 11월 말 추위에 대비해 예년보다 2주가량 일정을 앞당겨, 훈련을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무한 경쟁'도 눈에 띄었다. 국내에서 훈련이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캠프 선수단이 꾸려졌다. A·B조로 나눠 광주와 합평에서 맞춤형 훈련이 이뤄졌고, 새로운 감독과 코치진 앞에서 선수들은 '이름값'을 빼고 원점에서 경쟁을 펼쳤다. '최고집' 김주찬을 필두로 최형우, 나지완 등

도 합평과 광주에서 자율 훈련을 하면서 예외 없는 경쟁의 시간을 준비했다. 캠프 조장으로 훈련을 이끈 유민상도 '변화'와 '무한경쟁'을 언급했다. 유민상은 "기존에는 양적 훈련에 치중하면서 선수들이 직접 느끼도록 하는 캠프였다면 올해 마무리캠프는 코치님들께서 양보다는 선수들과 대화하고 이해하게 이끌어 주셨다. 양은 적었지만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캠프였다"며 "처음에는 선수들도 의아했는데 적은 훈련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독님이 짧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120%로 몸을 써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야 적은 시간에 훈련을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다. 훈련이 일찍 끝나도 선수들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훈련 방식은 물론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도 달라졌다. 엘리트 체육 중심인 국내 야구의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탈피해, 스스로 열심히 묻고 자신의 장점을 키우는 시간이 됐다. 유민상은 "학생 때 외국에 다녀왔는데 야구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자체가 강압적인 부분이 많다.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없지 않다. 특히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선배, 감독, 코치들 눈치도 보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표현하고 운동 시간이 적어도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며 "처음 주문사항이 아무리 작은 것도 무조건 물어보라고 하셨다. 그런 게 좋았다"고 언급했다. '투고타자'의 올 시즌, KIA를 웃게 한 '젊은 마운드'는 내년 시즌에도 치열한 자리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야수진도 새 바탕에서 '무한 경쟁'을 하며 체질을 강화했다. 유민상은 "야수 같은 경우 감독, 코치님들이 1군에 자기 자리 있는 선수가 없다고 강조하셨다. 감독님께서 무한경쟁이라고 전부 자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어서 어린 선수들에게 동기 부여가 된 것 같다"며 "캠프 때부터 하면 내년에 새로운 얼굴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팬들에게 더 나은 성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금의환향'

NL 사이영상 2위·MVP 19위  
한국인 투수 새 역사 기록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서 단독 2위에 오른 LAD저스의 류현진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이 한국인 선수로는 두 번째로 미국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 표를 얻었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15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 MVP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BBWAA 회원 중 선별한 30명이 1~10위표를 던졌다. 이 중 한 명이 내셔널리그(NL) MVP 투표에서 류현진에게 8위표를 안겼다. 류현진은 3점으로 NL MVP 19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올해 29경기에 등판해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올렸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다. 그는 14일 발표된 NL 사이영상 투표에서 아시아 투수 최초로 1위 표를 얻었다. 류현진은 사이영상 투표에서 총 88점(1위 표 1장, 2위 표 10장, 3위 표 8장, 4위 표 7장, 5위 표 3장)을 얻어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 72점)를 제치고 단독 2위를 했다. 2년 연속 사이영상을 받은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은 1위 표 29장, 2위 표 1장으로 207점을 얻었다. NL MVP 투표에서 류현진은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다. 다저스 외야수 코디 벨린저가 1위 표 19장, 2위 표 10장 등을 받으며 362표로 생애 첫 MVP에 올랐다. 그러나 류현진을 향한 8위 표 한 장도 의미는 있다. 한국인 선수 중 처음으로 MVP 투표에서 표를 얻은 선수는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다. 추신수는 2010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펠 때 아메리칸리그(AL) MVP 투표에서 9점(6위 표 1장, 9위 표 1장, 10위 표 2장)을 얻었다. 2013년에는 신시내티 레즈 소속으로 NL MVP 투표에서 23점(6위 표 1장, 7위 표 1장, 8위 표 1장, 9위 표 4장, 10위 표 3장)을 받아 12위를 차지했다. 류현진은 '코리아 메이저리거의 역사' 박찬호도 받지 못한 MVP 득표까지 성공하며, 한국인 투수 새 역사를 썼다. /연합뉴스

## PGA 투어 '세상에 이런일이'

멕시코 마야코바 클래식 1R 두개조 연속 같은 홀 홀인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두 개 조 연속으로 같은 홀 홀인원을 기록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16일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의 엘 카멜레온 골프클럽(파71·7017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마야코바 클래식(총상금 720만달러)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캐머런 트링갈리(미국)가 먼저 홀인원을 했다. 112야드 파3인 4번 홀에서 트링갈리는 56도 웨지로 티샷을 날렸고 이 공은 홀 바로 앞에 떨어져서 굴러 들어갔다. 바로 뒤 조에서 경기한 체이스 사이퍼트(미국) 역시 같은 클럽으로 날린 티샷으로 홀인원을 해냈다. 이번 시즌 투어 신인인 사이퍼트는 "앞 조에서 홀인원이 나와 박수 소리가 났고 서로 하이파이브하는 모습도 봤다"며 "나는 106야드 정도를 보고 쳤는데 약간 오른쪽에 떨어져 뒤 스핀이 먹혀 홀

안으로 들어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트링갈리는 경기를 마친 뒤 "뒤 조에서도 홀인원이 나온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사이퍼트는 3언더파 68타를 기록했고 트링갈리는 2언더파 69타로 첫날 경기를 마쳤다. 순위는 30~40위권이다. 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는 2004년 마스터스 16번 홀에서 파드리그 해링턴과 커크 트리플렛이 '백투백 그룹 홀인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홀인원 기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내셔널 홀인원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투어 선수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3000분의 1, 4명이 한 조인 그룹에서 두 명이 같은 홀 홀인원을 할 확률은 1700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경우는 한 조가 3명씩으로 2개 조 6명이었기 때문에 1700만분의 1보다 조금 높은 확률이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 EPL 거물 사령탑 연쇄 이동 예고

영 언론, 포체티노→마드리드·모리뉴→토트넘 예측

'거물 사령탑'들의 연쇄 이동이 예고됐다. 중심에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결별한 뒤 새로운 팀을 찾는 '명장' 조제 모리뉴(56·포르투갈) 감독이 있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17일(한국시간) "토트넘의 마무리시도 포체티노(47·아르헨티나) 감독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모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감독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까지 치고 오르면서 맨체스터 시티-리버풀-첼시와 '빅4'를 형성했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 12라운드까지 단 3승(5무 4패) 밖에 따내지 못하는 최악의 부진 속에 14위까지 추락했다. 이 때문에 이번 시즌이 끝나면 포체티노 감독도 경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더선은 "모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원하면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토트넘의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

혔다. 이어 "모리뉴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를 이끄는 지네딘 지단 감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몇 달 동안 후임자로 거론됐다"라며 "모리뉴 감독도 친구에게 지단이 그만두면 자신에게 사령탑 제안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제안이 온다고 해도 모리뉴 감독은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게 더선의 분석이다. 토트넘을 맡을 가능성 때문이다. 더선은 "포체티노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중도에 그만둔다면 차기 사령탑 후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모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오랫동안 포체티노 감독의 영입을 노려왔다"라며 "포체티노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맡고, 모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지휘하면 가장 값싼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